***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의 영으로 돌이킴으로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하여 그리스도를 얻음***

**9/11 월**

**마 3:17**  
**17** 보아라,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. “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,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.”

**갈 1:15-16**  
**15** 그러나 나를 모태에서부터 따로 분별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 
**16** 내가 그분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하도록 하시려고,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, 나는 즉시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았고,

**마 12:18**  
**18** “보아라, 내가 선택한 나의 종, 곧 내 혼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. 내가 나의 영을 그의 위에 둘 것이고, 그는 정의를 이방인들에게 알릴 것이다.

**마 17:5**  
**5** 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, 보아라,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. “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,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!”

**골 1:15-17**  
**15** 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,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.  
**16** 왜냐하면 만물,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,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, 보좌들이나 지배 권위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다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, 또한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, 그리고 그분께 이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.  
**17** 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,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.

**골 3:10-11**  
**10** 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.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.  
**11** 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, 할례자와 무할례자나, 야만인이나, 스구디아인이나, 노예나, 자유인이 없습니다.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.

**9/12 화**

**고전 1:9**  
**9** 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.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.

**고후 3:17**  
**17** 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.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.

**고후 3:18**  
**18** 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.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.

**고후 4:1**  
**1** 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받았으니,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.

**골 1:9-14**  
**9** 그러므로 우리도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,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바라며,  
**10** 또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,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, 하나님을 온전히 앎으로써 자라기를 바랍니다.  
**11** 또한 우리는 여러분이 그분의 영광의 권능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,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바라며,  
**12** 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.  
**13** 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,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.  
**14** 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구속받았습니다. 곧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.

**9/13 수**

**빌 3:13-14**  
**13** 형제님들,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.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.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,  
**14** 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.

**빌 1:20-21**  
**20** 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,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,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.  
**21** 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,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.

**빌 3:9, 20-21**  
**9** 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.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,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,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.  
**20** 우리의 국적은 하늘들에 있으므로,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구주,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.  
**21** 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,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.

**빌 4:11-13**  
**11** 내가 궁핍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.  
**12** 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.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,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,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.  
**13** 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.

**9/14 목**

**빌 3:8, 12**  
**8** 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.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,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.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,  
**12** 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,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.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,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.

**출 33:11-14**  
**11** 여호와는 마치 사람이 자기 동반자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시고 말씀하셨다.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온 뒤에도 눈의 아들이자 모세를 시중드는 청년인 여호수아는 천막을 떠나지 않았다.  
**12** 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. “보십시오, 주님은 저에게 ‘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거라.’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나 주님은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알려 주지 않으셨습니다. 주님은 일찍이 ‘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또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.’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.  
**13** 그러니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면 부디 저에게 주님의 길을 알려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제가 주님 앞에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. 또 이 민족이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.”  
**14** 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. “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며,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.”

**고후 2:10**  
**10** 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, 나도 용서합니다.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,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,

**엡 4:30**  
**30** 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마십시오.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혔습니다.

**9/15 금**

**딤후 4:22**  
**22** 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.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.

**롬 8:6**  
**6** 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,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.

**엡 1:17**  
**17** 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,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온전히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

**엡 2:22**  
**22** 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.

**엡 3:5, 16**  
**5** 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 주지 않으셨지만,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신언자들에게 이처럼 분명하게 영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.  
**16** 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,

**엡 4:23**  
**23** 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

**엡 5:18**  
**18** 술 취하지 마십시오.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합니다. 다만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.

**엡 6:18**  
**18** 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.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,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.

**9/16 토**

1. **마 16:24**  
   **24** 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,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.
2. **롬 10:13**  
   **13** “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.”
3. **마 16:21-23, 25-27**  
   **21** 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제삼 일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, 제자들에게 알려 주시기 시작하시니,  
   **22** 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한쪽으로 가서 “주님, 그럴 수 없습니다.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!”라고 하며 책망하기 시작하였다.  
   **23** 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베드로에게 “사탄아! 내 뒤로 물러가거라.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다. 왜냐하면 네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, 도리어 사람의 일에 두기 때문이다.”라고 말씀하셨다.  
   **25** 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,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.  
   **26** 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대가로 자기 혼생명을 잃어버리면,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?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생명과 바꾸겠습니까?  
   **27** 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,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.
4. **롬 10:12**  
   **12** 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,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이니,
5. **9/17 주일**
6. **계 12:10-12, 17**  
   **10** 또 나는 하늘에 있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. “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다.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던 그 비난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.  
   **11** 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,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.  
   **12** 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이들아, 즐거워하여라.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닥친다. 왜냐하면 마귀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, 심한 분노를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.”  
   **17** 여자에게 화가 난 용은 여자의 씨 가운데 남아 있는 사람들,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려고 나가서,
7. **계 22:1-7**  
   **1** 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.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.  
   **2** 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,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.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.  
   **3** 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고,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성안에 있을 것이며, 그분의 노예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.  
   **4** 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,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.  
   **5** 더 이상 밤이 없겠고,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.  
   **6** 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. “이 말씀은 믿을 만하고 참됩니다. 주님, 곧 신언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분의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.  
   **7** ‘보아라, 내가 속히 가겠다.’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.”
8. **찬송: 538 (英) 내 안에 주 계시하길  (中:399)**